**자기소개서**

**지원자 성명 : 이지상**

**1. 자신의 성장과정, 개인특성(취미/특기 등)과 삶의 목표에 대해 작성해주세요. (1,200자 내외)**

**(성장과정)**

**저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일터이신 경상북도 구미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집 근처에서 다녔습니다. 그후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경상국립대학교 정보통계학과에 입학하여 공부하다가 통계학의 이론을 머릿속에서만 알고 있는 것보다 프로그래밍 기술을 익혀서 직접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컴퓨터과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대의 흐름상 자연스럽게 AI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수전공을 시작하고 초반에는 웹/앱 개발자에도 관심이 생겨 프론트엔드, 백엔드 공부도 시도해봤으나 중간에 AI를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다시 생겨 현재는 AI 객체탐지 기법과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시계열예측 및 활용법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특성)**

**저의 취미는 발라드 음악을 들으면서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다.**

**특히 야간에 한적한 자전거도로를 혼자 달리면서 음악을 들으면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복잡한 세상속에서 잠깐이나마 단조로운 여유를 느낄 수 있음에 행복을 느낍니다.**

**(삶의 목표)**

**제 삶의 목표는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가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을 통찰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는 통계학을 공부하면서 과거의 사람들은 그 순간의 데이터를 쌓아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과 현재에도 그 열망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래를 통찰하는 전문가, 2023년 현 시대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되는 AI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남들에게 존경받는 삶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 학창시절 동안 정말 친절하고 유능하신 선생님과 교수님을 만나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제 마음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2. 살아오면서 본인이 경험한 가장 성공한 사례와 그 성공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경험을 작성해주세요. (1,000자 내외)**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인상깊었떤 성공 사례는 “두발 자전거 타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서 보조바퀴가 달려있는 네발 자전거를 선물받아 이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때쯤 보조바퀴의 왼쪽 부분이 돌부리에 걸려 부서지면서 더이상 자전거를 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린나이에 겪은 그때의 상실감은 지금까지도 느껴질만큼 컸습니다. 그 후 보조바퀴가 한쪽만 달려있는 자전거는 구석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무렵, 하교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쯤 되보이는 형들이 두발자전거를 타고 쌩쌩 달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불현듯 저는 방치되었던 제 자전거가 떠오르면서 마음속 한켠에 있던 자전거를 타고싶다는 열망이 올라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구석에 있는 자전거를 꺼낸 후, 공구함에서 드라이버를 가져와 남아있던 오른쪽 보조바퀴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파트단지 주차장으로 가서 자전거를 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았고 심지어 두발 자전거는 한번도 타본적이 없었기에 부딪히고 넘어져서 무릎과 팔꿈치가 다 까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때의 저는 넘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형들도 잘 타고다니는거 보니 나도 조금만 더 하면 잘 탈수 있겠는데?”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참 무모하다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지금 제가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두발 자전거를 꼭 타겠다는 마음’과 ‘두발 자전거를 꼭 탈수있다는 믿음’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에 결국 이틀만에 두발자전거를 타고 다시 달려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 두발 자전거 타는 것을 성공했던 제 경험은 어른이 된 현재까지도 통계적인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무엇인가를 하고자하는 마음과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운 일들도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3. 살아오면서 본인이 경험한 가장 큰 실패와 그 실패를 통해 느낀 점 및 성장한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1,000자 내외)**

**현재까지 제 삶에서 가장 큰 실패라고 느꼈던 경험은 대학 입시입니다.**

**저는 경상도 지역에서 자라다보니 중학교때부터 자연스럽게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진학을 희망하게 되었고, 중고등학교 내내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를 목표로 삼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때 수시로 대학에 지원했었습니다. 지원하고 처음 1차 서류합격 발표를 받았을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는데 다행히도 자소서와 학생기록부를 통해 모집인원의 3배수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거의 붙었다고 생각하고 수능 공부를 약간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수능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면접준비를 열심히 해서 붙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면접준비를 한창 하면서 정말 자소서와 학생기록부를 100번정도 반복해서 읽고, 예상질문을 만들어내서 혼자 면접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면접날, 엄청나게 떨렸지만 나름 대답을 잘 했다고 생각하며 나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최종 합격발표날이 되었고 저는 전날에 잠도 못잘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있었습니다. 대망의 합격발표시간이 되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험번호를 조회하는데 이럴수가.. 부산대학교는 후보2, 경북대학교는 후보1번을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1명은 빠지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간절하게 붙기를 바라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나 워낙 소수인원을 모집하는 학과이다보니 빠질 생각이 없어 보였고, 결국 부산대가 1명 빠지면서 최종적으로 부산대학교 후보1, 경북대학교 후보1로 추가합격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때 정말 인생을 다 헛살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큰 좌절감과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물론 경상대학교는 최초합격한 상태였지만 제가 목표로 했던 대학은 아니었기에 더욱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재수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경상대학교에 등록은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와서 되돌아보면 재수를 하지 않은 것을 정말 신의 한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상대학교에 와서 유능한 교수님들을 정말 많이 만나뵈었고, 컴퓨터과학과를 복수전공하고 각종 교내외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교 이름에 대한 콤플렉스를 자연스럽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 점은 어떤 환경에 가도 자기가 그 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반드시 원하는 바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성격의 장단점을 작성해주세요. (1,000자 내외)**

**제 성격의 장점은 눈치가 빠르고 공감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은 제가 군인으로 복무할때 부대에서 크게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눈치껏 행동하고 선후임들의 상황에 공감하다보니 전우들에게 큰 신임을 받으며 군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선후임간의 갈등이나 마찰이 있는 경우에 제가 중간에서 완충역할을 하거나 오해를 해소하고 훈련이나 작업을 할때 다같이 협동하여 으쌰으쌰 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군대라는 작은 사회에서 저의 장점은 제게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성격의 단점은 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낯을 꽤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친한사람들에게는 아주 활동적이고 말이 많은 외향적인 태도를 나타내지만 조금 어색하거나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소심하고 내향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단점은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에 복학하면서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복학해보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학의 모든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고, 저는 거의 기숙사에서 줌이나 비대면 녹화 강의를 들으면서 밥먹을때만 잠깐 밖에 나오는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었고, 굳이 코로나로 위험한데 만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1년정도 하다보니 저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내성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고 코로나 제한이 점점 해제되어 갈때쯤이 되니 같은학과에서도 선후배들을 알지 못하여 교류가 없어지고, 심지어 몇몇 동기들을 제외한 다른 동기들은 아예 연락조차 끊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도 학과행사에도 어느정도 참여하면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을 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많이 나아져서 사람들과 더욱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동아리도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여 훌륭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저의 한가지 목표입니다.**

**5. 지원동기와 지원부서에 본인이 필요한 이유를 작성해주세요. (1,000자 내외)**

**지원부서 : OO대학교 AI대학원**

**(지원동기)**

**제가 AI대학원에 지원한 동기는 현 시대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인 AI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와 심화학습을 통해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통계학도로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해야 더 정확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관심사는 기존의 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전통적인 통계적 처리 및 분석을 하는 것을 넘어 최근 활발히 사용되는 빅데이터라는 거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통계학이 쌓아온 이론과 전기,전자,컴퓨터과학 분야의 하드웨어 및 알고리즘 기술의 성장이 융합되어 가능하게 된 AI 인공지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즉, AI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기술과 지식을 연구하고 싶어서 AI대학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부서에 본인이 필요한 이유)**

**저는 학부를 다니면서 통계학을 본전공하면서 컴퓨터과학을 복수전공으로 하였습니다.**

**AI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모델링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통계학적인 사고와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하나의 과만 전공한 사람들에 비해 더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고 근본적인 문제상황에 접근할 때 더 유리한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학년때부터 복수전공하는 컴퓨터과학과 뇌과학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으로 활동중이며 LINC사업단의 산학연구과제를 수행하며 AI를 활용한 식품 안전 예측 모델링 작업에서 RNN, LSTM 등의 딥러닝 기법을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AI관련된 여러 논문을 읽어보고 졸업전에 논문을 써보면서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을 계획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제가 AI대학원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